

국가주도 상업화 시기 기자상에 내재된 남성성과 그 변화
: 1961년~1975년까지를 중심으로

최이숙(동아대 사회학과 강의전담교수)

1. 글을 시작하며

편집국으로 전화가 와서 내가 받으면 대뜸 ‘기자 있어요?’ 라고 상대방이 물어요. 아마 이시기 근무했던 여성기자들 중에 이런 전화 한번씩은 다 받아봤을 걸요?

(윤호미 인터뷰, 2007. 10. 3)

중매쟁이가 기자직을 떠나야 노처녀를 면하겠다는 엄포를 놀때. 엄마가 기자 딸이라서 남들 앞에 떳떳이 자랑하지 못하겠다고 말할 때. 난 뻔뻔스러울 수만 없는 기분이 되는 것이다.

(정정희, 1969)

산업화 시기 또는 1960-1970년대 한국의 기자상 기자의 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지리적 기자상의 쇠퇴’와 ‘전문직업인주의의 부상’ 또는 ‘샐러리맨화’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박용규, 2014; 이정훈·김균, 2006; 이종숙, 2004). 연구자들은 국가에 의한 통제 속에서 외형적으로는 비대해져갔지만 사회적으로 언론이 신뢰를 잃어갔던 상황, 그리고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최소한의 사실보도를 추구했던 기자들의 저항이 좌초되었던 현실이 기자집단의 자기 인식을 어떻게 바꿨는가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1960-70년대 한국 언론을 다룬 연구들이 그러하듯, 기자정체성에 대한 논의 역시 대체로 국가 통제 속 상업화라는 구조적 조건이 어떻게 언론인들의 직업 정체성에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흔히 ‘언론 또는 언론인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존재여야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진행된 기존의 연구들은 위에서 인용한 여성기자들의 경험이 제시하는 의문 즉 왜 오랫동안 기자는 남성의 직업으로 인식되었는가라는 물음에 답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글은 그동안 다소는 규범론적인 측면에서 진행되었던 해당시기 기자정체성의 구성과정을 조금 다른 시각, 즉 젠더 정치의 관점에서 다가가고자 한다.

흔히 이상적 직업인 상은 노동시장 내의 인력구조, 직업의 문화, 그리고 해당 직업을 둘러싼 담론 및 사회적 조건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구성되고 변화한다. 여성주의 조직연구자들이 지적하듯 일반적으로 직업인 상에는 소위 ‘남성적’ 특성과 가치들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정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조직 또는 노동시장이 어떤 가치를 숭상하고 어떤 것을 허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Ashcraft, 2005). 이렇게 볼 때, 한국의 기자상은 언론을 둘러싼 거시적인 조건 뿐만 아니라, 직업적 관행과 문화 그리고 언론노동 내의 가치체계, 언론

직의 사회적 지위 및 한국사회 젠더 담론이 반영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또 진실의 대변자, 사실의 전달자이자 국민의 계몽자등으로 표상되던 한국의 기자론에는 '기자'라 불리지만, 그 안에 수많은 비균질성이 존재하는 언론직 내에서 특정 부분을 선택하고 특정 부분을 배제하는 과정을 함축하고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언론계에서 기자직에 대한 본격적인 정체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1961년부터 1975년까지 한국의 기자상의 구성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흔히 기존의 저널리즘 역사 연구에서 1961년부터 79년까지의 시기는 박정희 시기, 또는 국가 통제 속 상업화의 시기로 명명되곤 하였다. 기자의 직업 정체성을 논의한 글 역시 이러한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언론계 내의 전문직업주의의 대두 및 수용양상을 분석한 서구의 연구들이 시사하듯, 기자정체성 또는 직업담론의 형성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언론노동의 행위자인 기자들의 직업적 자율성이라 할 수 있다. 자본으로부터 또는 권력으로부터 언론인의 직업적 자율성을 어떻게 지켜내고 사회에서 대중의 신뢰를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전문직업인주의(professionalism)와 같은 새로운 담론의 탄생 및 선택적 수용으로 이어지곤 하였다.

산업화 시기(1961~87년) 또는 한국언론의 상업화/박정희 정권기(1960~79)에서 기자들의 직업적 자율성과 언론사 조직 내에서의 지위 변화에 가장 중요한 결절점이라고 한다면 1975년 흔히 동아투위, 조선투위로 상징되는 언론자유수호선언일 것이다. 조선투위, 동아투위로 대표되는 1974~75년의 언론자유수호운동은 군사정권의 수립이후 언론의 자유와 직업적 자율성을 지켜내고자 했던 기자들의 저항과 좌절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상의 운동이 기자들의 대량해직으로 이어지고, 이후 편집국 내의 편집자와 일선 기자간의 분리가 가시화되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1975년 조선투위, 동아투위, 그리고 한국일보 노조 설립운동 이후 기자해직은 해당 시기 기자들의 직업적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변곡점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75년까지를 분석시기로 선정하였다.

젠더라는 틀로 기자상의 구성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다소는 이분법적으로 논의되었던 (지사적 기자상의 쇠퇴 vs 전문직업인의 부상, 또는 지사적 기자상의 쇠퇴 vs 샐러리맨화) 시각에서 벗어나 기자상의 다양한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2. 연구 자료의 수집 및 방법

한국의 기자상 내에 함축된 젠더적 가정을 드러내고, 기자상의 변동을 해당 시기 한국사회 젠더질서의 변화 즉 남성성의 변동의 맥락에서 고찰하기 위해 이 글은 해당 시기 언론유관단체 발간 간행물에 실린 기자들의 취재기 및 회고담, 언론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좌담회 및 의견글, 언론인 인터뷰 글, 순직기자에 대한 추모사 등을 분석하였다. 흔히 언론유관단체에서 발행한 기관지는 기자사회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연구지적인 성격을 띠었던 『신문평론』은 물론, 『기자협회보』에도 해당시기 언론의 방향 및 언론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토론회 및 특집글, 칼럼이 수시로 게재되었다. 특히 60-70년대 한국언론계는 국가의 통제와 산업화라는 환경변화, 박봉에 시달렸던 현실에 직면하여 당시 언론의 방향과 새로운 기

자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들 자료들은 이념형으로서의 기자상 및 취재 환경과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각각의 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던 기자로서의 자질과 가치가 무엇인지 1차적으로 파악한 뒤 그것이 갖는 젠더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자세한 논의는 당일 배포되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